

세계는 왜 한국에 주목하는가

- 한국사회 COVID-19 시민백서 -

1부 재난과 국가

이나미, 「한국의 대응 모델이 될 것인가」
김유익, 「중국 정부의 대응」
야규 마코토, 「일본의 방심과 미주迷走」

2부 재난과 매체

민지오, 「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」
장희욱, 「재난상황에서 본 저널리즘의 위기와 네티즌들의 반응」
조성환, 「이상적인 방역모델을 보여준 한국사회」

3부 재난과 공공성

박재현, 「신종감염병의 시대,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」
이원진, 「바이러스 오브젝트: 공적 물物の 귀환, 실재 객체의 등장과 그 공공적 방역」
조성환, 「재난에 발휘되는 도덕성」
김진경, 「재난, 혐오에 날개를 달다」

제4부 재난과 생활

이현진, 「코로나19가 바꾼 일상과 삶」
박지은, 「변화된 일상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? : 코로나19가 가져온 ‘비상적 일상’과 그에 대한 ‘공공’적 진단」
이원진, 「팬데믹 걸치의 도래 - 파국을 넘어서는 연대의 어슬렁거림」

제5부 재난과 종교

이창익, 「종교와 감염: 신천지와 종교 바이러스」
허남진, 「코로나19, 종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?」
홍승진, 「코로나19와 신천지 - 신성의 결핍을 파고든 사이비」

제6부 재난과 미래

박길수, 「다시개벽의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: 코로나19, 초연결사회의 도래를 확증하다」
심규한, 「인류가 우리다」
유정길, 「전환 시대의 새로운 삶의 지침, 멈추고 돌아보는 마음: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」